

### ㄹ 그리스도인은 왕가의 제사장 책무를 지닌 사람이다

성경말씀: 뵤뵤2:9

선거 이후 우리의 내면을 살피는 일 시작, 오후에는 김남준 목사님 책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나 역시 큰 도전을 받고 있고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되기를 원한다.

지난주, 그리스도인은 사명을 받고 선정된 사람이다. 그냥 구원만 받은 사람이 아니다. 사명이 있다.

그리스도를 바로 알면 생각, 사상, 삶의 방식, 인생관, 세계관이 바뀐다.

이전과 이후가 달라야 한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널리 알린다. 사명이다.

#### 인간이 인간다우려면

자신의 존재의 근원을 알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짐승

“나는 누구인가? 왜 사는가? 어디로 가는가?”

끊임없이 세상은 변한다. 그럼에도 확고히 서려면 더욱더 내 존재의 근원을 알아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과 세상과 인간의 관계망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된 사람이다. 그럼에도 “나는 누구인가?”를 알기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한다.

오늘은 우리는 왕가의 제사장, 기존 성경 왕 같은 제사장, Royal priesthood. Royal family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왕의 혈족으로 왕가에 속한 제사장

#### 제사장: 마르틴 루터의 발견

신약과 구약의 가장 큰 차이

물리적인 제사장과 성전, 특정한 규례, 날 등이 있느냐, 없느냐

신약시대: 전 신자 제사장 체계, 우리 몸이 성전, 특정한 규례, 날이 없다(침례, 만찬은 구원과 관계된

규례 아니다). 이 사실은 십자가 사건 이후에 명확하게 드러나서 바울과 사도들이 전한 것이다.

십자가 처형 당시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둘로 갈라짐(마27:51; 막15:38; 록23:45)

직통 들어가는 길이 열림

그러나 AD 90년경에 구약의 제사장 체계로 회귀하는 자들이 등장함.

계2:6 니콜라당, 일반 성도들을 타고 누르는 자들 등장, 교권 장악

이것이 AD313년 밀라노 칙령 이후 더욱 강화되면서 로마 카톨릭 체제 등장

제사장이 있다. 성당이 있다. 미사가 있다. 이런 체제가 무려 1000년 이상 지속됨, 중세 암흑시대

1517년 천주교회에 속한 마르틴 루터 등장,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전 성도 제사장 체계

올바른 교회의 목사는 priest가 아니라 pastor이다. 꼴을 주는 사람

절대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아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의 교회관: 두 개의 계급이 있다. 계층 구조적 교회 개념

1. 가르치고 명령하는 교회, 2. 가르침을 받고 순종하는 교회, 전자는 사제들, 후자는 평신도들

(\* ) 우리는 평신도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 성도

그 결과: 사제의 일은 거룩한 일, 하나님의 일, 성도들의 일은 세상 일, 육신적인 일

마르틴 루터는 이것을 산산조각 부숨: 유일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나머지는 다 제사장, 직통 들어간다.

인간 중보자 필요 없다.

칼빈 등장: 그는 구약 시대 신정 정치를 신약 시대에 구현하려던 사람, 그러다 보니 자연히 구약을 롤

모델로 삼아 성경을 영해하려는 견해를 펼침, 구약의 이스라엘: 신약의 교회는 영적 이스라엘, 구약

시대 이스라엘의 모든 언약 권리를 승계한다. 이스라엘 대체 신학, 우리는 이것을 믿지 않는다.

#### 구약 시대 이스라엘의 선택

그러나 칼빈 등의 주장 즉 이스라엘의 제사장 왕국의 특징이 교회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다.

출19:1-6, 제사장 왕국

1. 특별한 민족으로 선택받음: 당시 이 땅에 수많은 민족들 존재, 하나님은 이스라엘 선택

숫자를 보고 하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강권적 섭리

목적: 주변 민족들에게 유일하신 하나님 선포, 이런 차원에서 교회도 마찬가지이다.

## 2. 제사장 왕국

구약 율법 시대 제사장: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 희생 예물을 드림, 속죄하는 역할

구약시대 이스라엘은 전 민족이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의 제사장 역할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교회가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속죄로 이끄는 일을 감당해야 한다.

오순절 성령 강림 신약 시대의 본격적인 시작, 이때부터 교회는 불신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속죄를 받게 하는 일 수행, 교회가 부흥하면 반드시 사회가 변하고 그런 일이 일어난다.

웨슬레, 1703년 출생, 1791년 사망, 당시 혼동의 영국 사회 구출(18세기 산업화 노예 문제 등)

## 3. 하나님이 아끼시는 민족: 그들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선물이 있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 등

호4:6,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없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기록된 말씀만을 통해 가능하다.

현 시대 교회 역시 하나님을 아는 일에 탁월해야 한다. 춤추고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일에. 그래야 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교회와 목사는 성경 전체를 가르쳐야 한다.

교회 학교 12년 교육을 철저히 해야 한다,

요17:3

하나님을 알려면 성경을 가르쳐야 한다, 하나님을 알면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

히12:28-29

현 시대에 가장 크게 부족한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 거룩하고 두려우신 분

모든 교회와 목사가 영적인 대부흥을 원한다.

이러한 부흥은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데서 나온다. 성경을 절대적인 책으로 아는 데서 나온다.

Bible believer들이 많이 나와야 가능하다.

### 신약 시대 성도들에 대한 표현

일단 교회는 불신자들의 구원을 위한 사역 감당해야 한다(계5:9-10).

제사장 왕국, 왕가의 제사장, 그러면 왕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 1. 하나님은 만물의 왕

하나님의 왕국, 통치라는 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곳곳에 미친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바로 그 일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하나님의 선한 통치, 사회 경제 정치

문화 등, 그러므로 성경 읽고 주일성수, 십일조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면 큰 문제

하나님의 선한 통치가 우리에게 기쁨과 자유와 번영, 이것을 전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김남준 목사님의 말: 73쪽, 우리는 교회를 넘어서 이 세상을 바라보아야 한다. 그들에게 진리, 하나님

의 전체 진리를 가르쳐야 한다. 그래서 그들도 기쁨과 자유와 번영,

이것이 바로 존재의 올림, 행사나 거창한 구호가 아니다. 각 사람이 인생관, 역사관, 세계관의 변화

다른 사람을 인도하는 것

## 2. 교회는 하나님을 위한 봉사 공동체

왕국: 왕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체제

교회가 섬길 대상: 하나님, 세상, 그리고 교회 자신

(1) 하나님: 예배, 우리의 창조자, 우리는 창조물

(2) 세상: 이 세대를 섬기는 것, 구원과 진실 선포

(3) 교회: 교회를 더욱 온전하게 하는 일(엡4:11-12), 하나님의 사랑과 지식

## 3. 세상의 구원

불신 세상이 구원받게 하는 것: 가장 큰 사명, 예수님이 오신 목적(요3:16)

구약 시대: 왕과 제사장 겸직 불가, 사울은 제사장 역할 하려다가 혼남

신약의 예수님: 왕, 제사장, 대언자, 우리 성도들도 비슷하다(계5) 왕과 제사장

동시에 우리는 대언자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28장의 대위임의 말씀

그리스도인: 김남준 목사님,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세상과 인간에 대해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이끄는 유일한 통로, 물론 이 일은 성경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존재의 울림이 바로 이것이다.

이 일은 하나님의 계시를 알리는 데서 출발한다. 그것이 전부이다.

베드로전서의 베드로: 이유를 정확히 말하라(벧전3:15)

신자의 존재의 울림: (1) 도적 윤리적인 삶, (2) 체계적인 사상(이념)

#### 신자의 탁월한 지위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스러운 지위를 받음(롬8:16-17), 천사도 흠모(벧전1:12)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경륜의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1) 올바른 가정생활, (2) 교회 생활, (3) 직장 생활, (4) 시민으로서의 의무

존재의 울림은 이런 공동체 생활을 통해 전파가 된다. 교회 안이 아니라 밖으로

큰 울림을 내려고 생각하지 말라. 각 사람이 울림을 내려고 생각하라.

그리고 울림을 내야만 한다.

예수님을 보라: 위대한 정치가, 종교 지도자 아니었다. 나사렛의 랍비

그러나 그분은 존재의 울림의 연속, 가는 곳마다, 오병이어의 기적, 산상수훈의 기적  
이런 외침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변화된 사람은 많지 않다.

그러나 그 울림은 지금까지 지속된다.

이것이 중요하다. 영원히 울려 퍼지는 울림을 내려고 노력해야 한다. 크든지 작든지  
우리의 성경 사역, 말씀 사역, 예수님 공중 강림하는 날까지

소금의 역할 방부제, 맛을 잃으면 버려져서 짓밟히고 만다.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려면 우리가 먼저 기뻐야 한다.

#### 승리의 확신

이렇게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세상에서는 박해를 받는다. 반대가 많다.

이것은 당연한 일이다. 모두가 우리의 말을 듣는다면 이미 천국 아닌가?

진리의 기치는 진리를 따라 사는 데 있다. 세상이 듣느냐 듣지 않느냐는 그 다음의 일

요즘 우리 교회 실시간 중계: 코로나 전에는 하지 않음: 누워서 듣다가 교회에 안 옵니다

코로나 이후 세상이 바뀔: 긍정적인 반응, 아이들과 함께 듣는다. 외국에서도 듣는다.

코로나 이후 30% 성도 급감, 우리가 할 일: 이제는 실시간으로 들려주어야 한다.

누워서 듣든지 안 오든지 그것은 그 사람들의 문제: 교회는 편견 없이 사적인 이익 추구 없이 진리를  
선포하면 된다.

성경을 보면 열심히 존재의 울림을 내고도 세상눈으로 보기에 승리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히12:1).

이 사람들: 너무나 하늘의 가치가 귀하였다. 그래서 전하였지만 다수가 듣지 않는다.

그럼에도 우리는 승리를 확신한다. 그 이유: 우리는 진리대로 살았기 때문이다.

예레미야, 요나를 보라, 누가 더 위대한가?

그래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핍박이 있을 것을 명심해야 한다.

어쩌면 가시적인 큰 성과를 내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우리가 왕가의 제사장으로 진리의 싸움을 싸우면 승리는 반드시 우리의 것이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늘 기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존재의 울림을 주는 사람이다.

가장 먼저 나 자신, 가정, 직장, 교회, 국가, 세상에 울림을 보내자.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우리의 창조자이십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예수님만 구원자이십니다. 피  
흘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자유와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이것만이 진리입니다.”

왕가의 제사장으로 밖을 향해 중보 역할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한다.